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 2. 28(화) 9:30	배포일시	2023. 2. 28(화) 9:30
담당부서	환경지질처 환경사업부	책임자	부장 김이부(061-338-5821)
		담당자	차장 김재옥(044-864-6925)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자체 담당자 교육

- 사업 참여 지자체 담당자 맞춤형 사업관리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자체 담당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공사는 전문 지원조직으로서 이행 활동, 성과지표 관리, 연간 추진 일정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 계획 공유와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 10개 시·도에서 6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1), 강원(6), 충북(9), 충남(7), 전북(8), 전남(16), 경북(8), 경남(6), 제주(3), 세종(1)

‘19년에 도입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환경의 생물다양성이 증진되고 참여 마을 평균 330.2tCO₂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생물다양성: (3년차) 평균 14종 → (4년차) 평균 24종, 평균 10종 출현 증가

주원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 또한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 하였으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3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 현장 간에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